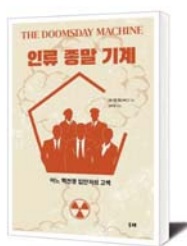


새 책

▶인류 종말 기계-어는 핵전쟁 입안자의 고백(테니얼 엘스버그 지음, 강미경 옮김)='펜타곤 페이퍼'를 폭로한 전설적인 내부 고발자 테니얼 엘스버그 미국 최고 기밀인 핵전쟁 정책의 위험성과 진실을 폭로하다! 인류 종말 기계, 그리고 놀랍고 충격적인 '인간의 광기에 관한 연대기'. 두권. 2만3000원.



▶불멸의 문장들(김우진·윤동주 지음, 윤작가 엮음)=1898년부터 1956년 이전에 활자화됐던 현대의 문장을 찾아 캐낸 보석 같은 매력적인 산문들 48편. 6개의 주제 속에 뽑아낸 48편의 문장과 작품의 탄생하는 과정을 추적해 시대와 공간을 넘나들며 활자 탐독 스토리를 녹여 평설로 흥미 있게 서술하고 있다. 우시모북스. 2만원.



▶날씨 통제사(최정화 지음)=영망이 된 기후를 인위적으로 조절하는 날씨 통제사의 최후를 다룬 '빙 커가 없는 자들', 태평양에 실재하는 쓰러진 섬을 시체 섬으로 비유하여 표현한 '그레이트 피서픽 데드 바다 패지', 만물의 영장이라 자부하던 인류가 파멸한 이후의 세계를 다룬 '비지터' 등 작가는 특유의 재치와 필력으로 다소 무거운 수 있는 주제를 흥미진진한 작품들로 탄생시켰다. 창비. 1만5000원.



▶하리(서경희 지음)=서경희 작가의 장편소설. 2022년 중소출판사 출판콘텐츠 창작 지원 사업에서 심사위원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으며 선정된 '하리'는 우리 사회가 지금껏 외면해왔던 미혼모들의 삶에 강인하지만 동시에 사려 깊은 필체로 생기를 불어넣고 있다. 문학정원. 1만6000원.



▶본격 한중일 세계사 15 동학농민운동과 청일전쟁(굽시니스트 글, 그림)=동학농민운동의 발흥과 조선 조정의 우왕좌왕 행보, 결국 한반도에서 벌어진 청과 일본의 한판 대결을 다룬다. 동아시아 패권의 새 주인을 가리는 청일전쟁이 시작되는데... 위즈덤하우스. 1만5800원.



▶도서관에 간 꼬마 도깨비(권삼중 지음, 현숙희 그림)=꼬마 도깨비 꼬비는 도깨비 대왕인 아빠에게 혼이 나자 인간 세계로 가출한다. 학교 도서관에 가게 된 꼬비는 도서관 친구들을 만나 함께 도서관에 대해 알아 간다. 꼬비는 도서관에서 무엇을 배우고, 도깨비 마을로 돌아가서는 어떤 일을 벌이게 될까? 키린도토리. 1만3000원.



# 고양이, 그 신비한 세계의 모든 것

## 베르나르 베르베르의 '...고양이 백과사전'

### 미처 몰랐던 고양이의 역사·생태 낱낱이 수록

데뷔작 '개미'를 집필할 때부터 인간이 아닌 다른 존재에 대해 호기심을 갖고 세심하게 관찰해 기발한 소설을 탄생시켜 왔던 베르나르 베르베르. 그의 상상력과 날카로운 관찰력이 고양이로 향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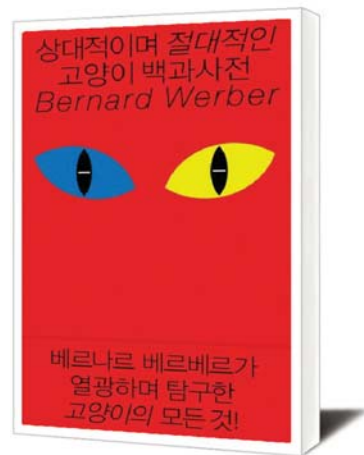
앞서 '고양이 3부작' ('고양이' '문명' '행성')에서 한계에 다다른 인류 문명을 조망하고 이를 대신할 고양이 문명의 탄생을 그려냈던 그가 이번엔 '상대적이며 절대적인 고양이 백과사전' (열린책들 펴냄, 전미연 옮김)에서 '고양이 3부작'의 등장 인물인 실험실 출신 고양이, 피타고라스를 통해 인간들이 미처 몰랐던 고양이의 역사와 생태를 낱낱이 알려 준다.

책은 크게 2장으로 구성됐다. 1장에서 >지구상에 나타난 최

초의 고양이 >신으로 대접받던 시절 >고양이가 전 세계로 퍼져 나가다 >고양이와 인간, 그 애증의 관계 >과학 기술 발전의 주역 >우주 정복에 나선 고양이를 통해 '고양이와 인간의 공존의 역사'를 알려준다.

2장 '고양이라는 동물'에서는 골격, 음식, 수면, 청각, 후각, 혀, 시각, 수염, 발바닥 패드(일명 발바닥 젤리), 꼬리 언어, 높은 곳에서 떨어진 고양이가 네발로 착지하는 이유 등 베르베르가 탐구한 고양이의 모든 것을 만날 수 있다.

책에 따르면 인간이 농사를 짓기 시작한 1만 년 전부터 고양이는 우리의 곁을 지켰다. 이집트에서는 고양이를 너무 좋아한 나머지 신으로 섬기고, 키우던 고양이가 죽으면 슬퍼하며 미라로 만들어 장사도 지냈다. 그러나 중세 시대 들어서면서 흑사병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등 불길함의 상징이 되어 종종 미움



을 받았다. 출판사는 "베르나르 베르베르의 관찰력이 궁금하고 엿보고 싶은 사람은 물론, 고양이를 사랑하고 그들의 모든 걸 알고 싶어 하는 이들에게도 책은 만족스러운 선물이 되어줄 것"이라고 소개했다.

책 속 가득한 다양한 고양이 모습은 읽는 즐거움을 더한다. 스파이 고양이의 엑스레이 사진, 이집트에서 송배받은 고양이 여신의 벽화 등 무려 137장이 실렸다. 1만6800원.

오은지기자 eojh@ihalla.com

# 삶을 바꾸는 '말 습관'에 관한 노하우

## '강원국의 결국은 말입니다'

"말이 글을 닮고, 글이 말을 닮을수록 당신의 말과 글은 정갈해진다. 글은 자연스럽게 자주 내뱉고, 말은 신중하게 꼭꼭 눌러 쓰자."(프롤로그 중)

작가는 "말하기에 관해 궁리하고 탐구했다"며 "이제 비로소 '말 같은 말'을 하게 됐고, 거기에서 '강원국의 결국은 말입니다' (더글 펴냄)에 담겼다.

크게 4장으로 구성된 책에는 저자 강원국 작가의 '말'에 관한 생생한 경험담과 함께 '인생을 바꾸는 말 습관'에 관한 노하우가 총망라됐다.

1장은 '상대를 받아들이고 내

생각을 확장하는 경청의 태도'에 대해, 2장은 '정확하고 적절하게 전달하는 말하기 기술'을 다룬다. 3장에선 '관계를 다루는 말하기 연습', 4장에선 '고쳐 쓴 글처럼 견고하게 말하기'에 대해 이야기한다.

생각해보고 말하기, 듣는 사람 입장에서 말하기, 말하고 나서 복기하기 등 누구나 따라할 수 있는 말하기 비법을 오랜 시간 실천해온 저자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다.

출판사는 "저자가 전하는 '말 잘하는 법' 중 가장 먼저 소개해 주고 싶은 방법은 바로 '반복'이라며 "매번 처음 하는 말처럼 반복, 또 반복하다 보면 각



인 효과는 물론, 그 말을 믿게 만드는 효과도 나타난다. 말은 씨가 되기 마련이고, 씨앗은 열매를 맺는다. 마음속에 있는 목표를 꺼내 말하고, 내가 되고자 하는 모습을 말한다면 그 일은 실제로 이뤄질 수 있다"고 전했다. 1만7000원.

오은지기자

## 제주신화를 읽는 새로운 길

### 강순희의 '제주 신화의 숲-문화소로 걷다'

지난 여름 "제주신화의 숲을 친구와 거니는 행복을 누렸다"는 강순희 작가가 최근 '제주 신화의 숲: 문화소로 걷다'를 펴냈다.

저자는 친구와 함께 제주의 숲을 거닐며 본풀이를 함께 읽고 애기를 나누며 의미를 확장하고 정리하는 이야기 구조로 책을 구성했다. 편안한 대화와 질문에 시각적인 이해를 돕는 삽화가 배치돼 자연스럽게 쉽게 신화 읽기에 다가갈 수 있다.

저자는 그 지역에만 있는 문화 조각을 이르는 '문화소'를 통해 제주섬 곳곳 신화에 담긴 또 다른 이야기들을 풀어내간다. 문화소를 배치한 원리인 문화 코드, 즉 문화가 서사에 담기도록 해주는 규칙을 통해 신화에 담긴 질서를 살핀다. 예를 들어 '고내리당본풀이'의 문화 코드는 '어업의 질서'이고, '원천강본풀이'의 문화 코드는 '장례의 질서'라고 본다.

책은 크게 1부 해석편 '문화소로 걷다'와 2부 이론편 '제주신화의 숲 탐방로'로 구성됐다. 1부에선 문화소 읽기를 통해 제주신화에 담긴 인간질서를 살핀다. 그렇게 7편의 본풀이를 새롭게 읽어 나간다. 2부에선 문화소 읽기와 해석을 위한 개념과 방법을 정리했다. 한그루. 2만2000원.

오은지기자



## 제주 입말로 전하는 한 여성의 생애

### 허계생·이혜영의 '제주 사람 허계생'

계사년(癸巳年)에 태어나서 계생이라는 이름을 얻게 된 여자가 이가 자라나 어린 노릇을 하고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아 기르고 늙어간다. 그 속에 '육지 사람들'은 상상하지 못한 제주의 이야기가 펼쳐진다. 허계생 '삼춘'의 말을 이혜영 작가가 글로 기록한 '제주 사람 허계생' (한그루 펴냄)이 최근 출간됐다.

출판사는 "어떤 사람이라도 사회적·역사적 굴곡에 휩쓸리고 흔들리고 일어서며 살다 보면 그 삶 속에 시대의 문화와 철학이 배어들기 마련이다. 그래서 모든 삶은 사회적일 수밖에 없다"며 "제주의 한 사람, 허계생의 삶을 따라 울고 웃으며 제주의 역사와 문화에 다가서 보는 책"이라고 소개한다.

이야기에는 제주 사람들의 지혜로운 삶의 모습이, 공동체와 함께했던 연대의 풍경이, 웃음과 눈물이 교차하는 여성의 한 생애가 펼쳐진다. 허계생의 구술을 따라 근대화과정의 제주도 마을과 들판과 오름과 밭으로 달려간다. 생소한 제주어에는 설명을 달았고, 말미에 이 책을 위한 '작은 제주어사전'도 덧붙였다. 1만6000원.

오은지기자



**당 축 선**  
CONGRATULATIONS  
**서귀포시체육회장**



**김태문**

서귀포시체육회장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날에 무궁한 발전과 더 큰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처가가족 일동**

**당 축 선**  
CONGRATULATIONS  
**서귀포시체육회장**



**김태문**

서귀포시체육회장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날에 무궁한 발전과 더 큰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서귀포산업과학고등학교 토목과 7회 동창회**  
회장 이순천 외 회원 일동

**취 축 임**  
CONGRATULATIONS  
**서귀포시체육회장**



**김태문**

서귀포시체육회장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날에 무궁한 발전과 더 큰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탐라회**  
회장 조경호 외 회원 일동

**합 축 격**  
CONGRATULATIONS  
**서울대학교 (화학과)**

**고은빈**  
( 조부 : 고희국 · 조모 : 오무순 )  
( 부 : 고보형 · 모 : 송지영 의 차녀 )

서울대(화학과) 합격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앞날에 건강과 행복이 항상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가족 일동**